

보도자료

발신|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사람들 <<http://blog.jinbo.net/action/>>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2008년 10월 1일 오후 4시

담당| 여옥(010-5183-0036), 이용석(016-854-0851)

제목| 무기 대신 평화를 -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는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건군 제60주년 기념사업단 (단장 김진훈 중장)’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군사퍼레이드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커다란 규모의 행사가 벌어집니다. 군사퍼레이드는 잠실주경기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 역삼역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성역인 군대가 평화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과 폭력의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에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국가안보의 허구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탱크와 무기들이 자랑스레 활개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에 대한 반대는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와 무시무시한 무기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5. 테헤란로를 가로지르는 살상무기들이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무기에 들어간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더 가치있는 것들을 찾아보며, 군사주의의 폭력성과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 반대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하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 반대 기자회견 〉

“무기 대신 평화를 -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2008년 10월 1일 오후 4시, 아시아공원(2호선 종합운동장역 1,2번 출구방향)

* 사회 - 호웅(병역거부자, 06년 3월 병역거부선언, 08년 8월 출소)

1. 국군의 날 무기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이유 - 여옥(전쟁없는세상 활동가)

2. 무기 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 무기 대신 영화를! - 김경목(독립영화감독, '나와 인형놀이', '얼굴없는 것들')
- 무기 대신 자전거를! - 조약골(자전거 라이더, 주행거리 12만KM)
- 무기 대신 문화향유권을! - 신유아(문화연대 활동가)
- 무기 대신 복지예산을! - 조승화(빈곤사회연대)
- 무기 대신 장애인 교육권을! - 김혜미(함께하는 서울부모회)

3. 성명서 낭독 - 엄창근(병역거부자, 03년 11월 병역거부선언, 06년 1월 출소)

〈 마포촛불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

“무기 대신 평화를 -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2008년 10월 1일 저녁 7시반, 홍대 걷고싶은 거리

* 사회 - 마포촛불연대

1. 공연 - 조약골(재야가수, 피자매연대 활동가, 자전거 라이더)

2. 공연 + 이야기 - 고동(병역거부자, 05년 10월 병역거부선언, 07년 9월 출소)

3. 영상 - 마포 촛불 + 기자회견 및 무기 퍼레이드 영상

4. 발언 - 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05년 12월 병역거부선언, 07년 10월 출소)

5. 공연 - 시와

6. 공연 - 실버라이닝

<성명서>

무기 대신 평화를!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방부는 5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국군의 날'의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올해 국군의 날은 건군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의 위상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번 군사퍼레이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한국의 자랑이라는 '흑표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83억 원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이 '흑표전차'를 총 680대 도입할 예정으로, 개발비 2000억 원을 포함하여 무려 5조 6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또한 삼성 테크원에서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지난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의 규모를 수출하였다며 국익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 마냥 국방부에서 자랑하던 것이다. 하지만 터키는 나라 없이 떠도는 쿠르드인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K-9 자주포는 쿠르드족의 주거지를 겨냥하기에 적절한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자랑' K-9 자주포는 터키의 어딘가에서 쿠르드인을 겨냥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K-9 자주포 사격장의 무리한 확대 계획은 무건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담보로 개발되는 무기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강한 무기에 대한 국가적인 열망은 그 사회를 좀먹을 뿐이다. 무기의 확충이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장 쓸모없는 곳에 돈 낭비를 하는 엉터리 평화일 뿐이다. 또한 무기들은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여 보이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시켜 전쟁의 도구로 복무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한다.

매해 정부예산의 15%정도에 해당하는 국방비, 그중에서도 무기획득에 관련한 예산은 대략 37% 정도 된다고 한다. 만약 이 예산이 교육이나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영역에 사용된다면 훨씬 적은 투자로도 오히려 막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육중한 무기들은 현실 속에서 전쟁을 대변하고 평화를 미래의 영역으로 넘겨버리지만, 평화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은 현실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다양한 층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흑표전차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이다. K-9 자주포가 아니라 아프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는 길거리에서 무기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든 책을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권리이다.

건군60주년 맞이 국군의 날, 살인과 파괴를 본래의 목적으로 가지는 무기들이 테헤란로를 질주하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나와 당신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 가을의 한복판, 무기들의 질주에 파괴되는 것은 테헤란로 아스팔트만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기들은 존재하는가.

#첨부자료1

한국군의 주요 무기들

<E-737 조기경보기>

보잉 E-737 조기경보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지테일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제작된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요구서에 맞추어 보잉사가 개발한 조기경보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한국에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탈리아에도 진출하려는 중이다. 한국의 EX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의 엘타 G-550 기종과 경합 끝에 이 기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기종 모두 한국군의 지상 레이더와 상호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조기경보기의 핵심이 레이더 탐지기능에 있다고 볼 때 주파수 간섭문제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들어오는 조기경보기의 성능과 효용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강행해서 특정 무기를 반드시 사줘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라 비판을 받았다.

E-737 조기경보기는 총 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총 15억 9천만 달러의 돈이 들 예정이다. 이를 1,100원 환율로 따지면 1조 7,490억원, 1인당 40,000원 정도라고 한다.

<독도함>

독도함은 해군의 대형 수송함이자 상륙함정이다. 2002년 10월 말에 한진중공업이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한 뒤, 2005년 7월 12일 진수하였고 2006년 5월 22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2007년 7월 3일 취역하였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으로 해군이 추진하는 대형상륙함(LPX,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가운데 1번함이다.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 주목적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미래형 강습 상륙함으로 기동 함대에 운영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독도함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진수, 일본의 F-22 전투기 도입 추진에 대응하는 F-35 도입 움직임 등 일련의 신형 무기 및 장비 도입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한 군비증강 노선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도함은 최근 '건국 60주년 특집 나라사랑 독도함 콘서트'가 열린 무대로, 중국 대륙에 태극기가 덮여 있는 로고의 문제로 민족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독도함의 총 건조비는 4,675억 원으로 이는 결식아동 16만 4천명에게 매년 285만원 씩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K-9자주포>

K-9은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자주포다. 삼성 테크윈에서 생산한다.

최근 국방부가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 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며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01년 10억불 규모의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했는데 이는 단일품목으로 단군 이래 최대액수의 수출량으로 한국 병기 수출사에 있어 꽤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물론 무엇을 팔던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K-9 자주포가 터키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과 학살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팔아서 먹고살 것이 따로 있고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지구상에 몇 안남은 나라 없는 민족인 쿠르드족은 나라를 찾기 위해 고단한 싸움을 터키와 이라크 등지에서 해오고 있다.

또한 K-9 자주포는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로서 결코 방어용 무기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K-9 자주포 등 육군 K계열 궤도장비에 대한 정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23억 원, 방위력개선키 중 계속추진사업으로 K-9 자주포,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에 1조9849억 원이 반영됐다.

<K1A1전차>

K1A1은 육군의 K1 전차의 재설계 모델로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지원 아래 로템에서 체계설계를 했고, 복합장갑, 탄도계산기, 포수조준경 등 주요 핵심 부품도 한국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장착됐다.

K1A1 사업이 진행될 당시 비록 북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가 질적으로 북의 최신 전차인 천마(T-59개량), T-6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개량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남북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도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군축의 1차적 대상으로서 불요불급한 투자라는 것이다.

K1A1 전차 도입에 드는 사업비는 개발비 307억, 총 484대 도입(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었다고 함), 합하면 2조 1603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 돈이면 결식아동 20만 명에게 2천5백 원짜리 도시락을 100년 동안 먹일 수 있다.

<K2전차> 일명 ‘흑표전차’

K-2 전차는 육군이 채용할 차기전차이다. 흑표(黑豹:Black Panther)라는 별칭이 있다. 1995년 7월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되어 2003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2일에 운용 시험 차량 1~3 호차가 공개되었다. 향후 군에 의해서 운용 시험이 2008년 말까지 행해져 양산은 2011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 전차를 개발한 현대 로템은 지난 2007년 터키에 기술이전 방식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했다. 흑표전차는 험한 지형에서도 시간 당 5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고 최대 수심 4.1m의 강바닥에서도 달릴 수 있으며 공격용 헬기 및 대전차 미사일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야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맞게 설계됐다. 터키는 한국과 비슷한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이 전차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의해 터키에서 흑표전차가 생산되면 터키 정부의 쿠르드 게릴라 소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위 4세대 전차라 불리는 K-2 흑표 전차는 K-1, K1A1 전차에 이어 얼마 전 개발완료 한 것으로 K1A1 전차 개량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차보다 이미 남한의 전차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차기전차 흑표사업을 포함, 후방지역 지상전술C4I체계,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훈련함, 펠리칸(소해헬기)사업, F-16전투기 성능 개량,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차기상륙함 전투체계, 공군전술 C4I 성능 개량 등 총 42개 사업 착수에 1,82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이며 총 예산은 5조6,440억 원, 여기에 개발비 2,000억 원을 더하면 흑표사업에 드는 총예산은 5조 8,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명에게 1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정리_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사람들 <<http://blog.jinbo.net/action/>>

#첨부자료2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

서울시내 한복판에 탱크가 나타났다

[이용석의 고장난 라디오] 건군 60주년 군사퍼레이드를 반대한다

서울시내 한복판 테헤란로에 탱크가 나타났다. 탱크뿐만 아니라 장갑차와 미사일과 군인들이 득시글거린다. 북한군이 아니다. 합법적인(?) 군대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자위대도 아니다. 평택주민들 다 쫓아내고 이사 간 미군도 아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상황은 실재상황이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탱크와 장갑차를 끌고 행진하는 것은 바로 한국군이다. 전쟁이 일어났냐고? 천만의 말씀. 사람들의 삶은 고되지만, 전쟁은 먼나라 이야기인 이곳은 한국땅이다. 건군 60주년을 자랑하는 국방부의 국군의 날 맞이 군사퍼레이드가 그 주인공이다.

공휴일이 아닌 국군의 날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군사퍼레이드는 아직 국군의 날 행사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군은 미군정기 필요에 따라 신설되었던 기관에 각각의 연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서로 기념일을 다르게 정했지만, 1956년 국무회의를 통해 10월 1일(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당시 동부 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건군 제60주년 기념사업단(단장 김진훈 중장)'을 따로 만들어 "선진강군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라는 기치로 잠실종합운동장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성시경, 김종민, 공유, 하하, 양동근 등 연예인 사병들까지 총출동시켜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의 클라이맥스는 뭐니뭐니해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역삼역까지 약 3km를 행진하는 5년 만에 돌아온 군사퍼레이드가 아닐까 싶다. 국방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계획을 보면 'K1A1 전차와 K-532 장갑차, K-9 자주포 등 우리 군의 첨단 무기 20여 종 80여 대가 선을 보일 예정이며, 아직 실전배치 되지 않은 한국형 차기 전차(일명 흑표)와 장갑차(K21) 등 최신 무기가 일반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테헤란로를 가득 채운 거대한 대량살상무기들은 과연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 무기를 사들이고 개발하는 노력을 다른 부분으로 돌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번 퍼레이드의 주인공 중 하나인 한국이 자랑하는 K-9자주포를 보자. K-9자주포는 기존의 K-55자주포를 개선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자주포로서 삼성테크윈이 생산을 한다. 최근 제2의 대추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무건리의 주민들은 K-9자주포 때문에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

다. 국방부가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 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며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적에 대한 공포심을 불모로 현실의 누군가의 구체적인 삶을 위협한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 규모의 K-9자주포를 수출했다. 국익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일 수 있겠지만, 팔고 나면 그 무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터키는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는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으로 악명이 높다. 어디에선가 쿠르드인을 겨냥하고 있을 K-9자주포를 테헤란로에서 보면서 마냥 뿌듯해해도 되는 것일까?

또 하나 한국의 자랑 K-2전차(일명 흑표전차)는 어떠한가. 아직 실전배치가 되지 않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인 K-2전차는 2003년부터 정식 개발되어 2011년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현대 로템에서 개발하였다. 이미 기존의 전차로도 북한군의 전력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실제로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총 68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개발비 2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5조 644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40만명에게 매달 30만원씩을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필요이상의 소비로 흑표전차를 개발하는 것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일인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또한 현대 로템은 2007년 4억달러를 받고 터키에 기술이전 방식으로 수출을 했다. 야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에 맞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지형이 비슷한 터키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K-2전차를 쿠르드인 탄압에 투입하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수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퍼레이드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무기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정부예산의 15%를 차지하며, 해마다 6~11%까지 치솟아 2007년에는 무려 24조에 다다른 국방비(그 중 약 37% 정도가 무기획득에 관련된 비용)가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다면 어떨까. ‘무기를 통한 평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노력을 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만 돌린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중한 무기들은 오히려 현실에선 전쟁을 대변하고 평화를 상상과 미래의 영역으로 넘겨버리지만, 평화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은 현실에서 다양한 층위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와 공공도서관과 돈 없어도 다닐 수 있는 학교,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런 것들은 심지어 무기에 들어가는 노력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무기가 우리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신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무기로 돈을 벌어야 하는 야만의 자본주의와 국익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살상무기들의 화려한 행진을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고추잠자리의 꼬리에서 단풍의 잎

사귀로 계절의 흔적이 옮겨지는 가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해야 할 눈부시게 푸르른 날, 어찌
다가 그 가을의 한가운데 국군의 날이 위치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
하는 능력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의 발명품. 누구를 위하여 무기
는 존재하는가.